

#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찬휘**  
SBS 과학정보부장

오늘은 참으로 딱한 사람을 만났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이 아니고 성대를 제거한 뒤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후두암에 걸렸던 것이다. 요즘은 후두암이라도 암세포만 들어내는 수술법이 개발돼 1기나 2기 같은 초기 암일 경우에는 성대를 살려 목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은 성대 전체로 암이 퍼진 3기에서 발견되어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물론 30년 넘게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워 온 담배가 원인이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 남성은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돼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고 친구들은 물론 가까이 지내던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특히 가족들과도 대화를 할 수 없어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 결국 자폐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앓는 비극을 맞게 됐고 '죽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두 마음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오늘 그 남성과 인터뷰 하면서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다는 행복'에 대해 알았다.

또 한 사람의 남성을 만났다. 그분은 어떠한 찬사를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분이였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목소리 전도사'였다. 그분 역시 담배 때문에 후두암에 걸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성대를 제거한 후두암 환자들처럼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분은 성대 제거로 인해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였고 갖은 고생을 다하였으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음성 전도사로 옛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 주는 삶을 살고 있다.

후두암으로 성대가 제거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

인류의 발명품 중 가장 해롭고 무익하며 나쁜 것이 ‘담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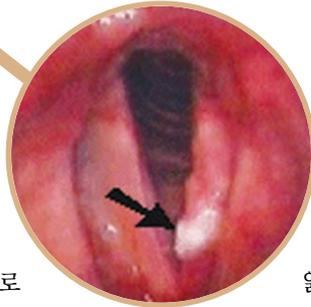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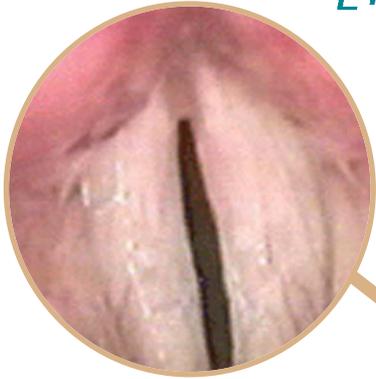
담배 때문에 성대를 제거한 후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흡연 해 온 사람들...

2006년 새해는 ‘금연의 원년’을 선포하고 담배와의

전쟁을 시작해 보자

”



첫 번째 방법은 목에 구멍을 뚫어 피리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감염의 우려가 커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턱 밑에 ‘전자기기’를 대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식도 발성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애 공기를 폐로 마시고 식도로는 음식을 섭취하지만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로 공기를 마시고 들이 마신 공기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식도 끝의 떨림을 통해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수술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터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 훈련은 결코 쉽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가혹하고 힘이 든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후두암 수술로 인해 성대를 제거하고 말을 잃은 사람들이 1,000명 정도인데 반해 이 ‘식도 발성법’ 사용자는 10여 명이 채 안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1~2명 뿐이다.

그러니 음성 전도사인 이 분을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분도 지난 25년 동

안 하루에 한 두 갑씩 담배를 피워 목소리를 잃었다. 그러나 식도 발성법을 피나는 노력 끝에 익혀 우리나라에서 식도 발성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 이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로봇’이 말하는 듯 어색하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분은 다시 말하게 된 것과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그 분과 이야기 도중 주변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 분은 그것을 보더니 “담배를 피운 것을 원인으로 성대를 자르고 식도 발성법을 배워 말을 하게 된 이후 담배 연기만 맡아도 싫다.”고 하며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인류가 만들어 낸 발명품 중 가장 해롭고 무익하고 나쁜 것이 바로 담배이며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지긋지긋한 담배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러분 이런 담배를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아무리 담배 끊기가 힘이 든다고 해도, 아마 성대 제거 수술에 식도 발성법 훈련까지 합친 정도는 아닐 것이다. 